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7. 11 (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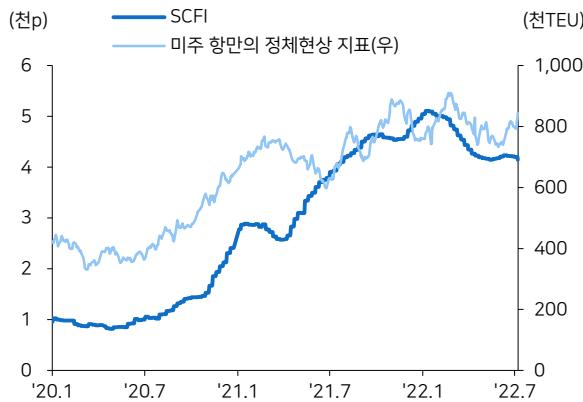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2,067.0p(-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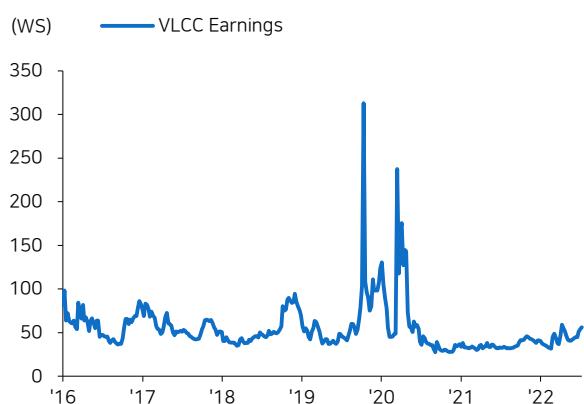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4,143.9(-59.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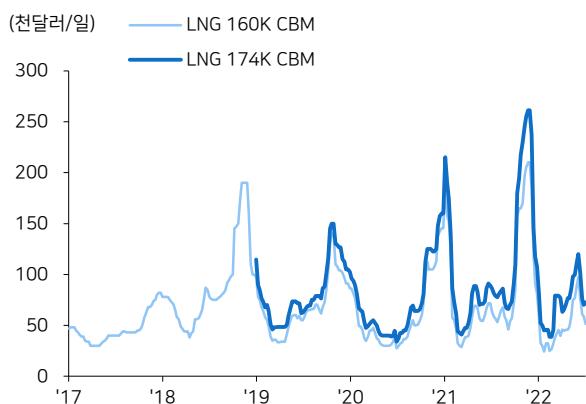
#### VLCC Spot Rate

56.3p(+2.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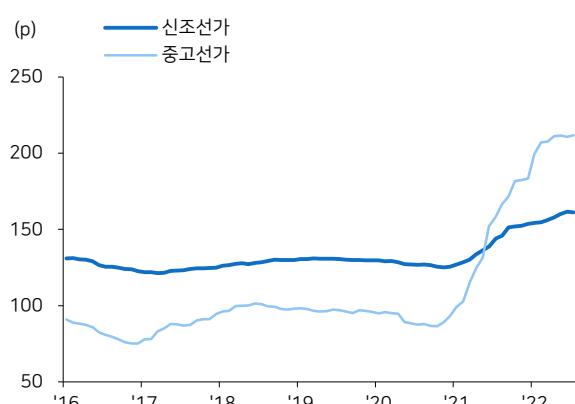
#### LNG Spot 운임

51.3p(-7.5p WoW)  
72.5p(+2.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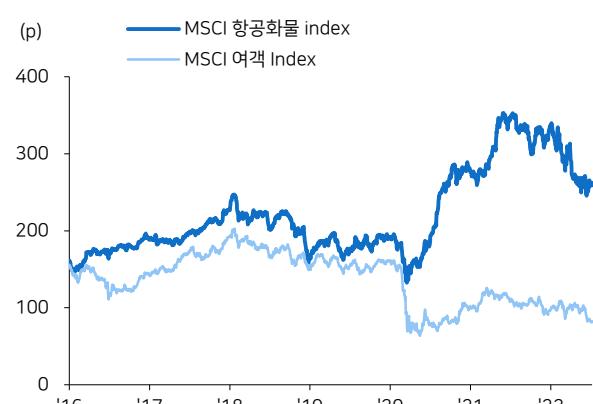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1p(-0.4p WoW)  
211.7p(-0.4p WoW)



#### 항공시장 지표

262.2p(-0.3p DoD)  
82.5p(+0.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현대미포조선, PC선 3척 수주…연간 수주 목표 초과 달성

현대미포조선이 PC선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115,000톤급으로 수주금액은 2,507억원(약 1.93억달러)임. 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임. (뉴스1)

### US halts environmental review of Venture Global LNG export project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Venture Global의 LNG터미널 CP2 검토를 중단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도됨. CP2는 이르면 2026년중순 연간 2,000만톤의 LNG를 생산할 예정이었음. FERC는 Venture Global이 제때 응답 및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Upstream)

### Aramco starts chase for Zuluf offshore projects worth up to \$2.5 billion

사우디 Aramco의 25억달러규모 EPCI 입찰이 시작되었다고 보도됨. Zuluf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포함됨. Aramco는 원유생산량을 현재 1,200만BPD에서 2027년 1,300만BPD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짐. (Upstream)

### Congestion keeping nearly half of chemical tanker fleet in port, Clarksons reveals

글로벌 화학제품운반선 선대의 절반가량이 항만정체로 밤이 묶여있다고 보도됨. 7월초 기준 2,290만DWT가 항만 대기 중이었는데, 글로벌 선대의 47%에 해당함. 3월말 48%를 기록 후 피크아웃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 동아시아와 유럽 항만정체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함. (Clarksons)

### Uptick in Russian 'dark' voyages seen

Vortexa에 따르면, EU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를 합의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를 나르는 탱커 '그림자 선대'가 증가했다고 보도됨.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를 꺼둔 선박 수는 5월 17척에서 6월 36척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짐. 업계관계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한편, 러시아는 2022년 상반기 EU의 최대 원유 수입처였다고 보도됨. (Tradewinds)

### 유럽 '50조 원전' 수주전… 한국 기술력 vs 미국 · 프랑스 외교력

약 50조원규모 폴란드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프랑스 정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됨. 한국이 원전 시공기술과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미국, 프랑스는 외교력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알려짐. 약 10~30년간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을 짓지 않아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11월말까지 체코 원전 1기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동아일보)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을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